

아동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 및 정서조절전략과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Emotion Regulation
with Negative Emotion*

김경희(Kyung-Hee Kim)¹⁾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with negative emotion. Following are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First, children's temperament and negative emotion, and emotion regulation was found based on children's sex and age difference. Second, if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children's negative emotion and emotion regul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3 students who were in 8, 10, 12 ages of elementary school in Mokpo. The scales used in this study was Buss & Plomin(1975)'s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Impulsivity) and Brand & Halpern(1998)'s ERACH(Emotion Response and Coping Interview). The data analysis was made by SPSS PC+, and average, two-way ANOVA, Scheffe test, correlation and were employed to test the research question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a difference in age was found , and a difference in sex was not found. Children's temperament was in positive relation with anger and emotion approach. This research will assist to make the foundation of counseling psychology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Key Words : 기질(temperament), 정서조절전략(emotion regulation), 부정적정서(negative emotion).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 경험은 아동의 신체, 심리, 사회, 정서발달에 누적적으

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면서(Halpern, 1999) 아동의 잠재력을 상실케 하므로 조기에 적절히 중재할 필요가 있음을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박진아·정문자, 2001; Brand & Halpern, 1999; 2001)

* 2002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¹⁾ 목포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yung-Hee Kim, Department of Child, Adolescent, & Housing Mokpo University, Muan-Chunge, Chunranamdo 534-729, Korea
E-mail : rosa@mokpo.ac.kr

은 지적하고 있다.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아동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상황특성에 따라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와 정서조절반응을 조사한 연구(Halpern, 1999; 2001)에서는 스트레스가 발생되었을 때 대부분의 아동들이 분노, 슬픔, 화, 걱정,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이를 조절하고자 회피, 수동적 대처, 적극적 대처등의 전략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이는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한다. 아동들은 문화적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혹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서 표출규칙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사회적인 맥락, 아동의 연령과 성별은 정서대처전략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중재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인간과 내적, 외적 환경 사이의 관계를 형성, 유지, 또는 파괴시키는 과정으로(Barrett & Campos, 1987) 인간 유기체의 심리학적, 인지적, 생리적, 경험적 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다(Izard, 1977; 임희수, 2001 재인용). 이러한 정서의 개념 변화에 따라 연구자들은 인간의 복잡한 정서를 맥락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Compas, 1987)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은 개인의 삶의 적응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이란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혹은 정서표현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켜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Ekman & Friesen, 1975), 정서조절의 또 다른 부분은 정서조절 전략에 관한 것으로, 이는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의 원인과 결과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방식과 관련된다. 아동은 언제 정서를 조절해야 하는 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서를 조절해야 하는 가도 아울러 인식하

고 있어야 한다. 정서조절 전략은 일단 아동이 정서를 경험한 직후, 상황에 대하여 일차적인 평가를 한 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을 함으로써 결정되므로 정서대처전략이라고도 한다(Zemam & Garber, 1996; Zeman & Shipman, 1996; 1998).

정서조절을 위한 전략들은 반드시 행동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인 전략으로 구분되어(Denham, 1998), 아동이 슬플 때 울음을 참는다든지, 슬픔을 유발한 상황에 대한 정당화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행동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 등을 말한다. 정서조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Rossman (1992)은 아동이 자기 자신의 정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전략의 발달을 조사한 결과에서 6세, 11세, 15세의 아동은 모두 상황적 수정(situational modification)을 조절전략으로 제안하였으며, 보다 나이든 아동의 경우는 정서적 반응에 대한 인지적 수정을 조절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이옥임(1996)의 연구에서는 분노상황이 또래와 관련되었을 경우에 아동은 공격적인 방안, 직접적인 문제해결방안, 무대처방안 등의 순으로 분노조절 전략들을 사용하는 반면에 성인과 관련된 상황일 경우에는 절반 이상의 아동이 성인의 말에 그대로 따르는 무대처 방안을 사용함을 밝혔다.

아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내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와 외적으로 표현하는 정서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최정운, 1994) 실망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자제하거나, 자신의 정서를 위장하여 표현하는 능력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발달한다(이지은, 1997). 이밖에 아동의 성별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데 차이가 나타난다. Burleson(1982)은 상심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하

여 아동이 사용하는 언어적 책략을 연구하였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언어로 타인을 위로하는 전형적인 책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책략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정서표현과 통제에 있어 성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서조절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여아에게서는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겠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나고, 남아보다 이런 정서들을 표현했을 경우 타인들이 자신을 더욱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Zeman & Garber, 1996).

한편, 아동이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타고난 기질적 특성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임희수, 2001). 그러나 인간의 행동발달은 타고난 유전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Beaver, 1997) 정서조절 행동 역시 타고난 특성과 사회화의 두 측면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서조절은 개인의 특성, 개인들간의 상호작용, 여러 사회체계와의 관계 그리고 문화적 믿음이나 규범 등 다양한 수준의 산물로서 이해될 수 있다(Parke, 1994). Gauvain과 Fagot(1995)는 일차적 정서의 표현 차이가 기질이며 정서표현은 행동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아동이 매일 매일 보이는 행동방식을 어머니에게 개방적으로 질문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기질을 4개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위축-낮은 적응성-의존성 요인, 활동성-반응강도-낮은 유순성요인, 까다로움-심술 요인 그리고 불규칙성 요인 등이다. 개인의 기질적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낮선 장소와 낮선 상황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Thomson, 1994). 즉, 기질에 따라 상황의 변화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대처한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우유의 온도가 항상 먹던 것 보다 조금 떠 뜨거울 때 어떤 영아는 상을 찡그리기만 하는가 하면 어떤 영아는 우유 꼭지를 밀어내고 운다(Thomson, 1994; Buss & Palomin, 1984).

Cassidy(1997)는 정서조절이 영아의 내적특성인 성과 기질 그리고 외적상황인 가정환경, 타인양육 및 양육자유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유아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정서를 경험하고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해석하고 정서적 표현행동을 결정하며, 점차 다양한 상황에서 표현해야 할 정서와 표현해서는 안되는 정서 표현방식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유아의 자기통제력과 관련이 있다(Knopp, 1982). 자기통제의 발달에 대한 연구에서 Knopp(1982)는 자기통제란 아동기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아초기부터 아동기에 이르는 발달과정을 거쳐 행동을 자발적으로 모니터하고 수정하는 능력이 점진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선 처음에는 적절한 행동기준을 어렵듯이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의식하는 일이 가능해지면, 그러한 기준에 맞게 행동할 것을 어른이 요구하거나 명령하면 따르게 되고, 마침내는 그 기준을 내면화하여 타인의 감시가 없더라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록 진보된 자기통제는 36개월 경에 출현하나, 어머니의 지시에 대하여 반응할 때 행동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실례들이 생후 9개월 정도면 이미 관찰 된다고 주장하였다. 유아는 대체로 2세 전후가 되면, 표상적 사고가 발달하기 때문에 양육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양육자의 의도를 상기하여 그것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자기통제의 개인차를 이해할 때에는 기질이라는 내적 요인이 내재적인 성향을 결정하는 측면과 사회화라는 외적 요인

이 그 내재적 성향을 심화시키거나 극소화시킬 수 있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Whitesell & Harter, 1996).

영아의 정서조절은 까다로운 기질을 지니는 특성과 상관관계가 있고, 남아인 경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Gauvain과 Fagot (1995)는 인지적 과제에 어머니-아동이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적인 기회와 아동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간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동의 기질이 까다롭다고 지각될 수록 어머니는 아동이 스스로 전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덜 주었으며, 아동의 의견이나 행동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어머니 방식을 요구하는 편이었다. 또한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과제에 덜 참여했던 아동들은 이후에 혼자서 과제를 해결할 때도 수행력이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격리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며 상황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Tronick & Cohn, 1989; Eisenberg & Fabes, 1992), 기질과 정서조절간의 유의한 상관도 보고되고 있다(Karraker & Lake, 1991; Tronick, 1989).

아동기에 접어들면서 아동들은 성역할 개념을 습득하고 기질특성은 사회적응을 위해 적절한 행동양식으로 형성되어 간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정서조절 연구결과와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조절을 연구한 논문들(김경희·김경희, 2000; 이지선·유안진, 1999)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양성성을 강조하는 사회의 영향을 암시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isenberg(1994)가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표현 통제능력이 기질 중 정서적 강도차원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이후 Eisenberg(2000)의 연구에서 유아들의 2년간 추

적 연구결과 행동, 정서조절과 외현적인 문제행동 간에 기질 중 부정적인 정서성이 중재역할을 함을 밝혀내어 정서조절에서 기질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아동의 성과 연령이 기질과 정서 및 정서조절전략에 영향을 주고 기질은 정서조절과 관계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아동기는 영아기부터 시작된 정서조절 방법이 여러 사회화의 과정이나 경로를 통해 내면화되어 가는 시기이므로 이시기 아동의 정서조절은 청소년기, 성인기의 정서조절과 정서발달의 밑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중기는 부모와의 정서 관련 반응이나 행동이 상황적으로 표면화되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이시기의 아동의 정서조절을 연구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양연숙, 2000; 임희수, 2001).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지능의 하위개념으로 정서조절을 고려해오면서 김경희, 김경희(2000)의 정서지능과 기질간의 관련성연구가 있으며, 양육방식과 기질 그리고 정서조절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양연숙, 2000; 박성은·박성연, 2001), 그리고 아동의 화 정서이해 및 화 정서조절 방안에 관한 연구(이옥임, 1996; 김준희, 1997)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내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와 외적으로 표현하는 정서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최정윤, 1994; 이지은, 1997)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일상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정서반응과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서조절전략을 알아보려 한다. 아동의 정서반응과 정서조절전략이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고 아동의 기질과의 관계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파악

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상담분야와 발달심리분야의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동관련 교육 및 발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긍정적 정서 발달을 촉진시키는 훈련내용의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기질은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정서반응은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아동의 정서조절전략은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아동의 기질은 아동의 정서반응 및 정서조절전략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목포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을 하는데 이해력이 낮고 표현력이 부족한 아동들의 반응 37부를 제외한 213부가 본연구결과 분석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은 남아가 44.6%이고 여아가 55.4%이었다.

<표 1> 연구대상 아동분포 N(%)

	8세	10세	12세
남	33(45.8)	31(41.9)	31(46.3)
여	39(54.2)	43(58.1)	36(53.7)
전체	72(100)	74(100)	67(100)

2. 측정도구

1) 아동의 기질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Buss와 Plomin이 개발한 아동용 EAS (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1이다. 본 도구는 영아의 기질에 초점을 두어 구분한 Thomas와 Chess(1977)의 기질 구성요소보다는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기질의 구성요소(수치심,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를 제시한 것으로 총 20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기질적 특성의 경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아동의 부정적 정서반응과 정서조절전략 측정도구

아동의 부정적 정서반응과 정서조절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Brand & Harpern(1998)이 개발한 ERACH(Emotion Response & Coping Interview)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6가지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상황(분실상황, 학업상황, 동료와의 충돌, 감정상황, 부모와 자녀충돌, 행복상황)에서 어떠한 정서반응을 유발하고 그러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 즉, 반응하는가를 질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즉, 아동의 부정적 정서반응을 알아내고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전략을 파악하고자 하는 개방형질문지이다. 본 척도는 1 : 1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한 사례분석을 위하여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과 연구책임자가 사례의 내용을 분석하고 전체사례분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부정적 정서반응은 분노, 슬픔, 불안의 유형

〈표 2〉 연구대상 사례의 내용분석

정서조절전략	사	례
문 제 해 결	• 문제에 대해 다른 몇 가지 해결책을 생각한다. •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한다.	
감정접근 반응	• 감정을 털어놓는다. 슬프다. 기도한다. 토라진다.	
회 피 반 응	• 사람을 피한다. 잠을 잔다. 숙제를 한다	
공격적 반응	• 때린다. 물건을 던진다.	
무대처 반응	• 모른다. 아무것도 안한다.	

으로 분류하였는데 분노는 화, 공격행동 등을 포함하고 슬픔은 울음 슬픔 등을 포함하며 불안은 걱정, 불안 등을 포함한다. 정서조절전략은 문제 해결, 감정접근, 회피, 공격적, 무대처 등으로 분류하였고 구체적인 사례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반응에서 나타난 사례는 정서유형과 정서전략의 항목별로 1점과 0점을 주었다. 연구 대상의 자료는 이를 기준으로 연구자와 연구보조자들이 각각 분류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토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였다.

3. 자료분석

기질과 부정적 정서반응, 정서조절전략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독립변인(성, 연령)에 따른 종속변

인(기질과 부정적 정서반응, 정서조절전략)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간 차이는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기질과 부정적 정서반응 그리고 정서조절전략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결과는 연구문제에 따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기질적 특성은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이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아동 기질적 특성의 일반적 경향

M(SD)

기질적 특성	8세		10세		12세	
	남	여	남	여	남	여
수 치 심	9.5(1.6)	9.4(1.7)	9.0(2.3)	9.4(1.9)	10.1(2.1)	9.8(2.5)
정 서 성	10.7(2.1)	10.3(2.2)	10.8(1.7)	10.4(1.8)	10.7(2.2)	10.0(2.0)
사 회 성	9.8(1.2)	10.1(1.5)	9.9(1.4)	9.5(1.6)	9.2(1.5)	9.3(1.6)
활 동 성	11.8(1.7)	11.6(1.4)	11.9(1.8)	11.3(1.8)	11.2(1.9)	10.6(2.0)

아동의 기질적 특성은 활동성과 정서성이 높게 나타났고, 수치심과 사회성은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정서성, 사회성, 활동성 기질은 연령이 많을 수록 낮은 경향을 보인다.

아동의 기질적 특성은 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가 사회성과 활동성에서 나타났으며 전체 기질점수에서도 발견되었다.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한 결과, <표 5>를 보면 아동의 사회성과 활동성은 8세(M=9.9, M=11.7)와 12세(M=9.2, M=10.9)에서 차이를 보이며 10세(M=9.7, M=11.6)은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아동기질의 사회성과 활동성 특성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사회화는 기질적 특성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Cassidy(1994)와 Knopp(1982)의 연구결과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통제력이 증가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양육방식을 매개변인으로 하지 않았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질점수가 감소됨은 환경의 영향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Gauvain과 Fagot(1995) 그리고 양연숙, 조복희(2001)의 연구에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들이 높은 질의 양육을 받을 경우에 성장하여 이러한 기질적 특성이 감소된다는 결과를 뒷받침

<표 4> 아동 기질적 특성의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검증 (F값)

독립변인	수치심	정서성	사회성	활동성
성	.01	3.28	.00	3.32
연령	1.90	.23	4.36*	3.94*
성*연령	.54	.14	.76	.18

*p<.05

<표 5> 아동 기질적 특성의 연령집단간 차이 M(SD)

학년	사회성	활동성
8세	9.97(.18) a	11.72(.21) a
10세	9.71(.18) ab	11.59(.22) ab
12세	9.23(.18) b	10.91(.22) b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의 부정적 정서반응이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아동의 부정적 정서반응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이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반응의 경향은 1학년은 분노정서와 슬픔정서가 불안정서 보다 많이 표현되었고 10세와 12세는 슬픔정서와 불안정서가 분노정서보다 적게 표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 6> 아동 부정적 정서반응의 일반적 경향

M(SD)

부정적 정서	8세		10세		12세	
	남	여	남	여	남	여
분노정서	2.8(1.5)	2.9(1.4)	2.8(0.9)	2.9(1.1)	2.6(1.1)	2.3(0.9)
슬픔정서	2.6(1.5)	2.5(1.4)	1.6(0.8)	2.0(0.9)	1.6(0.9)	1.5(0.8)
불안정서	1.0(0.3)	1.1(0.5)	1.3(1.0)	0.9(0.9)	1.7(1.1)	1.9(1.1)
전체	5.6(1.7)	5.7(1.9)	4.9(1.0)	5.3(0.7)	4.7(1.0)	4.4(0.9)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조절하거나 자신의 정서를 외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능력이 있다는 이지은(1997)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동의 정서반응이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불안정서와 슬픔정서 그리고 전체 부정적 정서반응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슬픔정서는 8세(M=2.6)가 가장 많이 표현하였고 10세(M=1.9)와 12세(M=1.5)는 8세보다 적게 표현하였다. 불안정서는 8세(M=

1.1)와 10세(M=1.1)가 12세(M=1.8)보다 적게 표현하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표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선행연구결과(Tronick & Cohn, 1989; Eisenberg & Fabes, 1992)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연령간의 차이에 대한 사후분석결과는 슬픔정서에서 8세가 10세, 12세 집단과 차이를 보였고 10세와 12세 집단간에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불안정서는 8세, 10세집단이 12세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8세와 10세 집단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체 부정적 정서반응은 8세와 10세 그리고 12세 집단간에 차이가 모두 나타났다. 이는 Halpern과 Brand(2001)의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슬픔과 불안정서 반응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분노정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에서 국외의 아동들은 분노반응을 표현하며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 아동은 분노반응을 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른 부정적 정서반응 (F값)

독립변인	분노	슬픔	불안	전체
성	0.09	0.21	0.00	0.05
연령	2.60	15.43***	16.02***	12.3***
성*연령	0.30	0.92	2.53	1.00

***p<.001

〈표 8〉 아동의 부정적 정서반응의 연령집단간 차이 M(SD)

학년	슬픔	불안	전체
8세	2.57(.13) a	1.01(.11) a	5.69(.17) a
10세	1.82(.13) b	1.13(.11) a	5.01(.16) b
12세	1.57(.14) b	1.84(.11) b	4.53(.17) c

세째, 아동의 정서조절전략이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아동의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정서조절전략의 일반적 경향은 문제 해결전략에서 8세 여아(M=3.0)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회피전략과 감정접근전략 그리고

〈표 9〉 아동의 정서조절전략의 일반적 경향

M(SD)

	8세		10세		12세	
	남	여	남	여	남	여
문제해결	2.7(1.2)	3.0(1.0)	2.5(0.9)	2.5(0.9)	2.0(1.1)	2.4(1.0)
회피	2.6(1.8)	2.1(1.8)	1.9(0.7)	1.9(1.1)	1.9(0.9)	1.6(0.8)
감정접근	3.0(1.7)	2.3(1.6)	1.9(1.8)	2.5(1.8)	1.2(0.9)	1.1(0.8)
공격	2.7(1.5)	1.9(1.5)	1.6(1.3)	1.5(1.3)	2.3(1.5)	2.6(1.5)
무대처	1.2(0.8)	1.3(1.1)	0.3(0.4)	0.4(0.5)	0.9(0.8)	0.5(0.5)
전체	9.9(4.2)	7.9(2.2)	7.7(2.4)	7.9(2.7)	7.6(2.4)	7.8(1.9)

〈표 10〉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른 정서조절전략

F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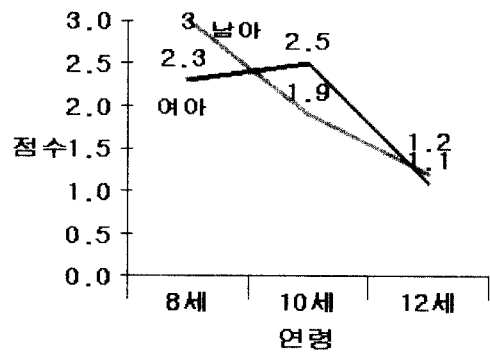
독립변인	문제해결	회 피	감정접근	공 격	무 대 처	전 체
성	3.15	2.53	0.12	0.98	0.95	1.48
연 령	4.36*	4.17*	17.76***	7.81**	23.18***	3.14*
성*연령	.52	0.65	3.06*	2.43	1.89	3.16*

* $p < .05$ ** $p < .01$

공격전략에서 8세 남아(M=2.6, M=3.0, M=2.7)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무대처전략은 8세 여아(M=1.3)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른 정서조절전략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모든 전략유형에서 나타났고 성과 연령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차이는 감정접근 전략유형과 전체적인 전략에서 발견되었다. 연령에 따른 정서조절전략은 일반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조절전략에서 낮은 점수가 나타난다. 연령 집단간의 차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표 11), 문제 해결전략과 회피전략유형은 8세집단과 12세집단간에 차이가 있고 10세 연령은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감정접근전략은 8세와 10세 집단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두 연령 집단과 12세 집단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공격전략은 8세와 12세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고 두 연령 집단과 10세 집단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대처전략은 10세집단과 12세 집단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두 연령집단과 8세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alpern(1998, 2000, 2001)의 연구에서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정서조절전략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인지적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행동적 전략은 연령이 적은 아동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또한 연령이 적을수록 문제에 직면하여 당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나 의지가 불분명하고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아동의 감정접근조절전략의 성과 연령간의 상호작용

〈표 11〉 아동의 정서조절전략의 연령집단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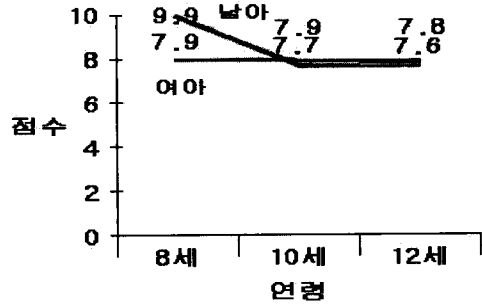
M(SD)

학 년	문제해결	회 피	감정접근	공 격	무 대 처
8세	2.85(.15) a	2.35(.15) a	2.65(.18) a	2.34(.18) a	1.30(.09) a
10세	2.54(.13) ab	1.87(.15) ab	2.25(.18) a	1.57(.17) b	.41(.09) b
12세	2.26(.13) b	1.75(.16) b	1.13(.19) b	2.47(.18) a	.73(.09) b

아동의 감정접근 조절전략의 성과 연령간의 상호작용을 제시한 <그림 1>을 보면 8세 남아가 감정접근 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10세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감정접근 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12세는 남아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한 정서반응의 일반적 경향을 통해서 볼 때, 여아는 연령이 적을 수록 슬픔정서를 많이 표현하고 남아는 연령이 많을 수록 분노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Zeman과 Garber (1996)의 연구에서 여아들은 슬픔을 표현했을 때 타인들이 자신을 더욱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것이다.

아동의 전체 정서대처전략의 성과 연령간의 상호작용결과를 제시한 <그림 2>를 보면 8세는 남아가 10세와 12세는 여아가 대처전략에서 남아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상은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이지선·유안진, 1999)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외의 선행연구(Tronick & Cohn, 1989; Eisenberg & Fabes, 1992)결과와는 일치한다. 이는 추후연구에서도 성별의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정서조절전략이 행동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Denham(1998)의



<그림 2> 아동의 전체 정서대처전략의 성과 연령간의 상호작용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결과에서도 전체적인 정서대처전략유형에서 연령간의 차이가 발견되었을 뿐 만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대처전략유형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네째, 아동의 기질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반응 그리고 정서조절전략유형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기질의 정서성이 분노정서와 상관관계가 있고 감정접근 전략과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성기질의 높은 성향이 있는 아동이 분노정서를 많이 표현하고 감정접근의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분노정서가 표현될 때 전략유형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표 12> 아동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반응, 정서조절전략과의 상관관계

	수 치 성	정 서 성	사 회 성	활 동 성	분 노	슬 픔	불 안
분 노	.02	.16*	.09	-.04			
슬 픔	-.04	.08	.10	.10	-.14*		
불 안	.08	.05	-.07	-.04	-.38***	-.19**	
문제해결	-.01	-.04	.07	-.05	.05	.19*	-.09
회 피	.02	.10	-.06	.04	-.11	.21**	-.01
감정접근	-.03	.17*	.09	.09	.10	.26***	-.05
공 격	.06	.08	-.02	.01	-.01	-.01	.17*
무 대 처	-.01	.06	.00	.05	.08	.16*	.01

데 이는 모든 전략유형이 사용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슬픔정서는 문제해결전략, 회피전략, 감정접근전략 그리고 무대처 전략유형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공격전략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슬퍼서 공격성을 나타내는 아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안정서는 공격전략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불안이 높을 수록 공격적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아동의 정서적 기질 특성은 분노반응과 상호연관성이 깊음을 알 수 있으며 분노반응과 불안반응이 높을 수록 대처전략을 사용함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Karraker & Lake, 199; Knop, 1982; Halpern, 1999; 2001; Tronick, 1989)와 다소 일치하는 것이다. 즉, 자기통제력을 획득함에 있어서 정서유형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며 슬픔보다 분노와 불안의 감정이 통제하기 어려운 정서라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내적정서와 외적정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최정윤, 1994)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한편으로 국외의 연구결과(Halpern, 1999; 2000)에서는 문제해결전략을 많은 아동들이 사용하는 반면 본 연구대상 아동들은 감정접근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연구결과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추후 비교문화연구를 통해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부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면서 정서조절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정서이론가들은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서와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의 차이점에 대한 관

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인간본성의 정서요소를 스스로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고 인간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본성에는 기질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는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항상 관계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기질과 정서는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아동상담에서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들이 분노와 슬픔 등의 정서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례는 종종 볼 수 있다.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을 표현할 때, 부모들은 고집이 세다, 까다롭다, 신경질적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는 아동의 기질과 정서반응 및 조절전략과는 상호연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경험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아동의 기질과 아동이 일상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정서반응과 조절전략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 대한 성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었다. 수치심과 정서성은 연령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 특성으로 나타났고 사회성과 활동성은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으로 보여 졌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아동의 정서와 관련된 기질적 특성은 행동과 관련된 기질적 특성에 비해 변화속도가 느리거나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서는 인간의 일생을 통하여 작용하는 것이며 성장함에 따라 환경의 영향으로 다소 표현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할 때 표출되어 나올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서가 부정적 일 수도 있고 긍정적 일 수도 있으므로 영아기 부터 아동의 정서가 긍정

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환경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담에 의뢰되어 오는 아동들은 대부분이 부정적 정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례들이다. 부정적 정서의 표출과 더불어 긍정적 정서의 자리매김을 더 크게 할 수록 상담은 단기에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 그리고 아동과 상호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아동이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한편, 아동의 부정적 정서반응은 불안정서와 슬픔정서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고 분노정서에서는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Halpern(1999; 2001)의 연구에서 분노정서에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발견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성과 연령을 구분 없이 분노정서를 가지고 있고 이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양문화에서 화를 표현하는 것을 조절하고 통제하도록 교육받는 경향이 있고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보다 표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는데서 아동들에게도 분노표현을 자제하는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슬픔과 불안을 표현하는 것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척도에서 제시한 상황이 아동들의 일상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므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 슬픔이나 불안 정서를 표현하지 않아도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같은 상황이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Denham(1993)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와 아동의 정서반응이 정적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를 가지면 아동도 긍

정적 정서를 갖는다고 하였다. 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정서를 경험하고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해석하고 정서적 표현행동을 결정하며 점차 다양한 상황에서 표현해야 할 정서와 표현해서는 안 될 정서를 인식하게 된다.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보면 성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은 반면에 연령에 따른 차이는 모든 전략유형에서 나타났다. 또한 감정접근전략에서는 성과 연령간의 상호작용효과도 발견되었다. 이는 Halpern(1999; 2001)의 연구에서 정서조절전략에 문제해결전략에서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발견된 것과 다소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녀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아동들은 문제해결전략을 감정조절전략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들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감정에 초점을 더 두는 것으로 보여진다.

Eisenberg(1994)와 동료들은 부모의 정서조절 방식과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어머니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의 정서조절 방법을 사용할 수록 아동들은 적극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한편 어머니가 최소화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록 아동은 회피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국내와 국외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문제상황을 감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으므로 아동들에게서도 본 연구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들에게 정서조절 방식을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중심으로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아동들의 문제해결방안이 변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서 정서성은 분노정서

와 상관관계가 있었고 정서조절 전략유형의 감정접근 전략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해결을 하는 경향이 많고 정서반응에서 가장 부정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분노를 다른 기질적 특성을 지닌 사람보다 더 내면에 가지고 있기도 하며 이를 쉽게 표출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슬픔정서는 기질적 특성과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공격적 정서조절전략을 제외한 문제해결전략, 회피전략, 감정접근 전략 과 무대처 전략등과는 정적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alpern (1999)의 연구결과와 다소 일치하는 측면이기도 하지만 감정접근전략이 정서유형과 기질적 특성과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면에서는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 이는 부정적 정서반응과 정서조절전략에서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정서조절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만드는 내적인 근원은 신경조절 시스템, 행동특성(기질), 인지적 특성 등이 있으며 외적인 근원은 부모의 양육행동스타일, 외적인 훈련 등이 있다 (Causey & Dubow, 1992)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화권의 특정한 신념, 언어 조절규범, 특정사고방식과 같은 정서적 문화(emotional culture)는 그 문화권에 속하는 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Goldsmith & Campos, 1990). 서구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교 문화적 연구에 의하면(Averill, 1990; Chen & Rubin, 1995; Rosaldo, 1984; 임희수, 2001 재인용) 특유의 문화권에 따라서 사람들은 특유의 정서 상태와 표현 그리고 조절 방식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외국의 스트레스 상황의 이야기를 번안하여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문화적 차이가 이야기를 설정하는데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한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외국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함으로 상황에 따른 정서와 정서조절전략의 차이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한국적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개발하여 조사하는 것이 문화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가 위와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으나 문화적 차이를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Halpern의 척도를 번안하여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그녀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었고, 다소 서양문화와 동양문화의 차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들이 정서표현에 있어서 분노를 통제하고 있고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되어 간다는 결과를 통하여 정서표현에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과 더불어 본 연구결과를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아동들의 정서조절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진다.

참 고 문 헌

- 곽혜경 · 조복희(199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통제책
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
지*, 20(1), 165-175.
- 김경희 · 김경희(2000). 유아 정서지능 발달에 관한 연
구. *아동학회지* 21(4), 21-34.
- 김준희(1997). 아동의 정서이해.기질에 관한 연구. 숙
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은 · 박성연(2001).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양육행동
및 모자녀 애착과 남·여 아동의 행동역제간의

- 관계. *아동학회지* 22(2), 27-41.
- 박진아·정문자(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 양연숙(2000). 영아의 타인양육경험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조절.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옥임(1996). 아동의 화 정서 이해 및 화 정서 조절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1996). 우리나라 영유아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감성교육, 한국어린이육영회 학술발표자료.
- 이주일(1998). 체험정서와 표현정서의 심리적 효과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은(1997).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사용 능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희수(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 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은혜(199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이 유치원에서 유아의 초기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1987). 5-8개월아의 기질 조사 연구. *아동학회지*, 8, 1-15.
- 최영희(1988). RITQ의 타당성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 89-102.
- 최정운(1994). 정서와 정서표현에 대한 아동의 이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tshuler, J. L., & Ruble, D. N.(1989).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awareness of strategies for coping with uncontrollable stress. *Child Development*, 60, 1337-1349.
- Averill, J. R.(1990). Emotions in relation to systems of behavior. In Stein, N. L., Leventhal, B., & Trabasso, T.(Ed.). *Psychological and Biological Approaches to Emotion*. Hillsdale,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nd, B. E., & Weisz, J. R.(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day stress. *Development Psychology*, 24, 247-253.
- Barrett, K. C., & Campos J. J.(1987). Perspectives on Emotional Development II : A functionalist approach to emotions. In J. D. Osofsky (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 : Wiley. 555-578.
- Bates, J. E.(1987). Temperament in infancy. In J. 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 : Wiley.
- Beaver, B. R.(1997). The role of emotion in children's selection of strategies for coping with daily stresses. *Merril-Palmer Quarterly* 43, 129-146.
- Bradshaw, D. L., Usui, H., Miyake, K., Campos, R. G., & Campos, J. J.(1991).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maternal control communication and compliance. In M. Bullock(ed), *The development of intentional action, cognitive, motivational, and interactive processes*, 55-68. Basel : Karger.
- Brand, K. L., & Halpern, L. F.(1998). Negative Emotion Interview for Children. Unpublished measure.
- Brand, K. L., & Halpern, L. F.(1998). Negative Emotion Questionnaire for Adults. Unpublished measure.
- Buss, A. H., & Plomin, R.(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Y : Wiley.
- Cameron, J. R.(1977). Parental treatment, children's temperament, and the risk of childhood behavioral problems : I.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children's temperament over tim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7, 568-576.
- Carey, W. B.(1973). Measurement of infant temperament in pediatric practice. In J. C. Westman(Ed.).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 NY : Wiley.
- Cassidy, J., Parke, R. D., Butdovsky, L., & Braungart, J. M.(1992). Family-peer connections :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ausey, D. L., & Dubow, E. F.(1992). Development of a self-report coping measur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 21, 47-59.
- Compas, B. E.(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 393-403.
- Compas, B. E., Connor, J. K., Saltzman, H., Thomsen A. H., & Wadsworth, M.(1999). Getting specific about coping : Effortful and involuntary responses to stress in development. In M. Lewis and D. Ramsay(Eds), *Soothing and stress*(pp. 229-256). Mahwah,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mpas, B. E., Malcarme, V. L., & Fondacaro, K. M.(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05-411.
- Denham, S. A.(1993). Maternal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todd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 715-728.
- Eisenberg, N., Fabes, R. A., Nyman, M., Bernzweig, J., & Pinuelas, A.(1994).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children's anger-related reactions. *Child Development*, 65, 109-128.
- Fabes, R. A., & Eisenberg, N.(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 116-128.
- Fagot, B. T., & Gauvin, M.(1997). Mother-child problem solving : Continuity through the early childhood years. *Development Psychology*, 33(3), 478-488.
- Gauvain, M., & Fagot, B. L.(1995). Child temperament as a mediator of mother-toddler problem solving. *Social Development*, 4, 257-276.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황태호 역 (1996), 감성지능. 서울 : 비전 코리아.
- Goldsmith, H. H., & Campos, J. J.(1990). The structure of temperamental fear and pleasure in infants : A psychometric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1, 1944-1964.
-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A., Parke, R. D., & Fox, N. A.(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 93-103.
- Halpern, L. F., Garcia Coll, C. T., Bendersky, K., & Meyer, E. C.(1999). The Contributions of Temperament and Maternal Responsiveness to the Mental Development of Small-for-Gestational Age(SGA) and Appropriate-for-Gestational-Age (AGA) Infants.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 Halpern, L. F., Garcia Coll., & C. T.(2000). Temperament of small-for-gestational age and appropriate-for-gestational-age infants across the first year of life. *Merrill-Palmer Quarterly*, 46, 738-765.
- Halpern, L. F., & Brand, K. L.(April, 2001). Child Behavior Problems : A Function of Temperament, Emotion Regulation and Coping. In L. F. Halpern & K. Shipman(Chairs),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Coping : Implications for Psychosocial Adjustment*. Symposium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inneapolis, MN.
- Halpern, L. F., Brand, K. L., & Malone, A. F.(2001).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Very-Low-Birth-Weight(VLBW) and Full-Term Infants : A Function of Infant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Child-Rearing Attitud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6, 93-104.
- Hanna, D. R., Lowe, K. A., Mass, J., & Halpern, L. F.(November, 2000). The effects of negative life events, satisfaction with social support and denial coping on psychopathology in adolescents.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New Orleans, LA.
- Karraker, K. H., & Lake, M. A.(1991). Normative stress and coping processes in infancy. In E. M. Cummings, A. Greene, & K. H. Karraker(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 Life-span perspectives on stress and coping*. Hillsdales, NJ :

Erlbaum.

- Kendall, P. C., & Wilcox, L. E.(1979). Self-control in children :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1020-1029.
- Knopp, C.(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Lowe, K. A., Brand, K. L., & Halpern, L. F.(July, 2000). Differences in the play characteristics of very-low-birth-weight(VLBW) and full-term infants and their.
- Parke, R. D.(1994). Progress, paradigms, and unresolved problems : Recent advances in our understanding of children's emo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57-169.
- Rossmann, B. B. R.(1992). School-age children's perceptions of coping with distress : Strategies for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ration of adjust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 1373-1397.
- Rothbart, M. K., Derrtberry, D., & Posner, M. I.(1994). A psychologic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temperament. In J. E. Bates & T. D. Wachs (Eds.), *Tempera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t the interface of biology and behavior*(pp. 83-116).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aarni, C.(1997). Coping with aversive feelings. *Motivation and Emotion, 21*, 45-63.
- Thompson. R.(1994). Emotion regulation :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5-52.
- Tronick, E. Z., & Cohn, J. F.(1989). Infant-mother face-to face interaction :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coordination and the occurrence of miscordination. *Child Development, 60*, 85-92.
- Whitesell, N. R., & Harter, S.(1996). The interpersonal context of emotion : Anger with close friends and classmates. *Child Development, 67*, 1345-1359.
- Zeman, J., & Garber, J.(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 It depends on who in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 957-973.
- Zeman, J., & Shipman. K.(1998). Influence of social context on children's affect regulation : A functionalist perspective.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2*, 141-165.

2004년 8월 31일 투고 : 2004년 10월 28일 채택